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통 역세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운영중단  
오는 16일부터 재개... 4년 9개월만  
광역교통망 확충, 시민 교통 편의↑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도심공항터미널)이 재개통돼 역세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도심공항터미널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공항터미널은 KTX광명역과 인천공항 간 편리한 연계를 위해 광명시-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2018년 1월부터 광명역사에 설치·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이 재개되면 인천공항 국제선 접근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KTX광명역세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항공 체크인과 수하물 발송을 미리 할 수 있고, KTX-공항버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전용 출구를 이용해 빠르고 편한 출국을 할 수 있다.



KTX 광명역 전경.

시는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9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버스 노선 신설 추진, 공항버스 정류장 재정비 지원, 도심공항라운지 내 공항버스 정보 시스템 제공, 도로표지판에 광명역과 도심공항터미널 병기 표시, 홍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8507번 버스를 내년부터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영하여 KTX광명역

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8507번 버스는 오리서원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경제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 고교생, 대학서 수업 들으면 학점 모두 인정

2025년부터 고교-대학 연계학점 구축  
수업 만족도 ↑, 학교 과목개설 부담 ↓

(2025년 참여 시도교육청 및 대학)

시도교육청	참여대학
부산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대구	영남대, 대구보건대
광주	조선대, 조선간호대
울산	울산대
전북	전북대, 전주교대, 국립군산대, 군산간호대, 원광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우석대

/교육부

2025년부터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동교육과정(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타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개설도 어려운 과목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제공) ▲학교밖교육(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체제) 등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공동교육과정은 지난 2023년 기준 5478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온라인학교는 올해 9개교에서 내년 17개교 등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학교밖교육도 지난해 기준 41개 과목에서 112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됐다.

이번 방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

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교육을 활성화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맺은 상호협약에 따라 대학은 시도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고교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에 마련된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등에 수업을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성적은 산출·기재되지 않고, 과목명,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기재될 예정이다.

/이현진

# 서울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 나서  
국내 최초 인증제 도입... 편의 제고

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제공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실시간 충전 정보를 3분 이내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신고 청구도 통합해 이용 불편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된 충전기는 이날부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용자가 인증된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한다.

그간 50여 개의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 ▲고장 발생 시 느린 대응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1차로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1000대를 통합하고, 향후 민간 충전기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약 1000기의 제

조사별 상이했던 고장 코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렸던 충전소 정보제공 통신주기를 1분 이내로 통일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 성능 강화, 고장예방과 신속 대응, 정확하고 빠른 인증제는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등 3개 분야 총 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34기를 평가, 현재까지 81기를 인증 완료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인하대, 디스플레이용 발광소재 난제 해결

TMD 혼합 통해 빠른 인광 구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이 디스플레이용 발광 소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하대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최진호 화학공학융합학과 박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팀은 유기물과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TMD)의 혼합을 통해 마이크로초 단위의 인광을 만들었다.

TMD는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는 그래핀 이후 각광 받는 2차원 재료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암석에서

얻을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이다.

연구팀은 TMD의 무거운 전이금속이 유기물에 강한 스핀-궤도 상호작용을 유도해 순수 유기물의 단일항과 삼중항 상태 사이 전이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팀이 관측한 마이크로초 단위의 인광 특성은 두 물질 간 화학적 결합 없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는 효과만으로도 상온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인광 소재가 가지는 긴 지속시간으로 인한 잔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지속가능한 마이스산업 구축 앞장

'서울 마이스 ESG 비전 포럼' 개최

서울시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 마이스(MICE) ESG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마이스(기업

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운영 확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를 서울형 마이스 ESG 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제로 마

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는 마이스관계 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서울관광재단과 '서울 마이스 ESG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으며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2월 11일 (수)

음력: 11월 11일

수도권 날씨

0 ~ 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37 | 해질 / 17:14

연천 -4/7

동두천 -3/7

가평 -4/7

파주 -4/6

서울 0/6

양평 -3/6

인천 0/5

수원 0/6

용인 0/6

평택 -2/6

백령도 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인수위,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사진 뉴시스  
▲트럼프 취임 노림수?... 中 특목, 美 법원에 “강제 매각법” 발효 시점 미뤄달라

▲美 국무부, 탄핵 정국에 “현 대통령은尹... 정치는 법에 따라 진행돼야”  
▲中 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한국 통치체제 혼란 극에 달해... 日 정부, 對韓외교 방향 고심”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재입국위해 남부 국경관문 재개방 /사진 뉴시스